

>>>

### 포장표준화 통한 물류비·원가 절감에 주력 기업체 포장인력 양성에 도움될 터



김성대  
동양제과(주) 포장개발팀 팀장

금번 제66회 포장기술사에 합격한 동양제과(주) 포장개발팀 김성대 팀장은 “합격할 수 있도록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주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포장기술사 합격이 ‘포장인’으로서 결실이 아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성대 팀장은 지난 15년간 동양제과 포장개발팀에서 포장연구에 주력해왔으며 특히 비스킷, 캔디, 껌 등 다양한 식품 특성에 적합한 제품 포장개발을 비롯, 포장표준화를 통한 포장재 원가절감, 물류비용절감, 매장별 소비자층에 맞는 포장 기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0년 이상 ‘포장맨’으로 살아왔지만 ‘포장’에 대해 더 깊이있고 폭넓게 알고 싶어 시험에 응하게 됐다고 겸손하게 밝히는 김 팀장은 국내 포장산업이 부가가치적인 측면에서 성장·발전할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생각한다.

김성대 팀장은 지난 98년부터 시작한 동양제과의 ‘박스재활용을 통한 원가절감 및 포장표준화를 통한 물류비절감’을 포장일에 종사하는 15년간의 가장 뿌듯하게 기억할 수 있는 부분으로 꼽으면서 앞으로도 박스 회수율을 높이고 품목을 확대키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밝혔다.

“포장개발일을 처음 시작했던 때보다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는 그는 대량생산에 주력했던 과거 시장에 비해 대형매장이 도입되는 등 호화브랜드가 성행하는 현 시장을 바라보며 포장의 중요도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다.

“포장개발에 있어 주기적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소비 계층이 다양해짐에 따라 제품의 구매를 결정짓는 것은 ‘포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김 팀장은 소비자의 취향과 나이를 고려하고 포장 품질과 가격을 염두해 창의성을 바탕으로 포장 차별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김성대 팀장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일반 기업체들이 제품포장기획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손실을 입는 경우를 종종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면서 “기업체들이 전문적인 포장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포부를 밝혔다. 김성대 포장기술사가 국내 포장산업 발전에 도움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그의 행보를 주목해 본다. ☎